교과부는 우리의 정상화 방안 즉각 수용하라!

정문 앞 피켓시위
매일 08:20~09:00
경산캠퍼스 정문·서문

대구대 지키기 상경투쟁
5월 12일 (목)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변화의 시작, 도전의 중심!

제21호 / 2011년 5월호

노조창립일 | 1988년 2월 13일 **발행일** | 2011년 5월 1일 **발행인** | 양춘호 **편집및제작** | 홍보부 TEL | 053)850-5760~1 FAX | 053)850-5764

4월 동향

- 05 제67차 집행부회의
- 06 학원정상화추진위 간담회
- 07 행정관리자협 임원 간담회
- 08 학원정상화 시민단체 기자회견 참석
- 12 제68차 집행부회의
- 13 학원정상화추진위-학생회 간부 간담회
- 14 학원정상화추진위 공청회
- 15 학원정상화 촉구 동성로 집회
- 19 제69차 집행부회의
- 21 학원정상화 촉구 보신각 집회
- 26 제70차 집행부회의
- 27 총장-범대위 정기 간담회
- 29 제3회 전국사립대노조연맹 체육대회 개최 (영덕연수원) 10개교 120여명 참가

알 림 터

■ 오세빈 새 사분위원장 공정성 논란【교수신문, 2011. 4. 25】
동덕여대 구재단측 로펌 대표 … 대구대 · 동덕여대 "영남대처럼 구성원 합의 승인하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20

■ 서울대, "법인화 갈등 해결하나"【대학저널, 2011. 4. 21】
직원, 학생 등 법인화 준비에 구성원 참여 확대 … 법인화 따른 구성원 갈등 해소하고 성공적 법인화 이루기 위한 조치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1

■ 상지대 비대위, 지난 사분위 결정 '원천무효' 주장【한국대학신문, 2011. 4. 22】
"사분위 지난 결정, 재평가와 반성 있어야" … "사분위 결정은 다시금 상지학원을 비리재단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반교육 세력의 거대한 음모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http://www.unn.net/m/news_view.asp?nsCode=73889

■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추진한다【한국대학신문, 2011. 4. 25】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는 약 2280억원이 모금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http://www.unn.net/m/news_view.asp?nsCode=73972

알아봅시다 노동절(May-Day)의 유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을 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中 -

세계 노동절 121주년 대구대회 열려

121번째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 대회 및 집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에서도 '세계 노동절 121주년 대구대회가 5월 1일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열렸다.[사진]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대구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제121회 세계노동절 대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가족, 시민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참여형 부스 설치, 노조별 사전대회, 본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 대회는 노동자 발언대 및 공연이 1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본 행사를 마친 후에는 행사장을 시작으로 반월당 네거리를 경유, 칠성시장까지 4km가량 거리 행진이 이어졌다.

여전히 정부당국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60년대식 표기를 고수하고 있지만 87년 6월 항쟁에 이어진 88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절'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일로 자리매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가장 큰 연중행사가 되고 있다.

美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투쟁

노동절(勞動節, May-Day)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이 그 시초이다.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독점기업의 성장으로 노동문제는 더욱 날카롭게 현실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민중의 피땀을 거름으로 자란 독점 자본은 국가권력과 의 결탁으로 세계사를 제국주의, 파시즘으로 이끌고 가며 민중의 삶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짰다.

19세기 후반 미국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운동 또한 발전했다. 1869년 펜실바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결성된 노동기사단이 그 처음이었다. 노동기사단의 뒤를 이어 미국 노동총연맹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1884년 제 4회 대회에서 1886년 5월 1일부터 1일 8시간 노동을 법률로 정하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결의하였다.

드디어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각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일제히 일어났다. 시위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자, 항의 집회가 헤이 마케트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집회가 해산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회의장에 폭탄을 던졌고, 이로 인해 경찰과 시위 군중이 심하게 충돌하여 쌍방 간에 사상자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위 주동자 8명이 폭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뒷날 세상 사람들은 헤이 마케트 사건이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자본가들이 날조한 사건이었음을 알게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으로 미국 노동운동의 힘찬 발걸음이 영원히 멎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파업지도자인 엘버트 파슨즈가 형장에서 숨을 거두며 남긴 "민중의 소리를 들으라" 는 말 속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잠시 바다으로 가라앉은 노동자들이 함성은 힘찬 분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노동자의 투쟁에서 세계 노동자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14일,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파리에서 열렸다. 미국 노동상황을 보고 받은 파리회의는, 미국 노동상황을 기념해 5월 1일을 만국 노동자들의 단결의 날로 정하고, 8시간 노동제를 목표로 하여 1890년 5월 1일, 일제히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이 국제적인 메이데이의 발단이다. 그 후 메이데이는 역사의 흐름에 발맞추어 때로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동해방운동의 상징으로 정착되어 왔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이 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유럽 · 중국 ·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 · 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에 의해 3월 10일 행사가 무력화되고, 5월 1일 노동절 복원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이어지자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 선 | 여성부장

개념탑재 프로젝트 >> 경조사 예절 ❸

봉투는 예절을 싣고~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의 모친상에 방문한 김씨는 다들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것은 '단자'라고 하는데 봉투 안에 돈과 함께 넣는 내지로 일종의 '편지'다. 과거에는 경조사에 돈 대신 선물을 보냈는데 그 내역을 단자에 적었던 관례가 지금까지 전해내려 오는 것. 봉투에 돈만 넣는 것보다 단자를 작성해 함께 넣으면 정성이 담겨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처 등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는 단자를 쓰는 것이 좋다. <홍보부>

단자를(單子) 작성해 봉투를 격상시키자

1 깨끗한 흰 종이를 부의금에 감싼다.
2 결혼식이나 생일잔치에는 기쁜 일이 이어지라는 의미에서 밑단을 접지 않고, 장례식이나 병문안에서는 슬픈 일이 끝맺음되라는 의미로 봉투 밑단을 접어준다.
3 단자에는 각 경조사에 따른 문구를 적는다. 봉투의 문구와 일치하면 된다.
4 단자의 중앙에는 세로로 금액을 적는다. '金○원'으로 적으면 되는데 한글로 써도 무방하지만, 역시 격식이 필요한 자리라면 한자로 쓰는 편이 좋겠다. 단자에 적는 숫자는 일반적인 한자와 달리 '갖은자'를 쓴다. 갖은자는 계약서 등 중요 문서의 금액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자를 말한다. 일(壹) 이(貳) 삼(參) 사(四) 오(伍) 육(陸) 칠(柒) 팔(捌) 구(玖) 십(拾) 백(百) 천(阡) 만(萬) 억(億).
5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의 이름을 적는다. '절을 하며 올린다'는 의미의 배상(拜上) 또는 '정중히 절을 올린다'는 의미의 근배(謹拜)를 이름 뒤에 붙인다.

祝結婚	金貳拾萬원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年 月 日 ○○○謹拜
賻儀	金壹拾萬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年 月 日 ○○○拜上

5월의 생일자

05-03	김 중 호	정책사업특별팀
05-04	피 정 훈	시설팀
05-05	김 명 호	학생지원팀
05-05	이 종 준	산학연구진흥팀
05-06	이 석 범	그린캠퍼스팀
05-08	윤 성 훈	산학연구진흥팀
05-10	최 인 희	비호생활관
05-10	신 성 진	도서정보팀
05-10	이 근 태	정보화개발팀
05-15	전 재 경	야간강좌
05-16	황 수 공	그린캠퍼스팀
05-17	이 수 찬	생활체육교육센터
05-18	최 무 한	총무팀
05-18	손 영 숙	총무팀
05-21	김 상 수	그린캠퍼스팀
05-24	김 태 현	경리팀
05-24	김 봉 심	취업지원팀
05-25	최 윤 열	정보통신운영팀
05-25	이 현 주	행정대학행정실
05-25	정 형 대	시설팀
05-28	김 성 수	구매팀
05-30	김 용 식	국제교류팀